지역대학들 책 구입 무관심 도서관 보유 장서 초라하네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75권·전남대는 59권…사립대도 전국 평균 훨씬 못미쳐

책을 멀리하는 대학생들 영향 때문일까.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도서관 자료 구입에 지나치게 인색, 학생들이 질(質)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국·공립 대학을 비롯, 사립대의 도서관 자료 구입 수준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내놓은 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는 전국 국·공립대 평균 도서수(75권)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의 경우 전남대는 고작 59권에 불과해 지역 대표 국립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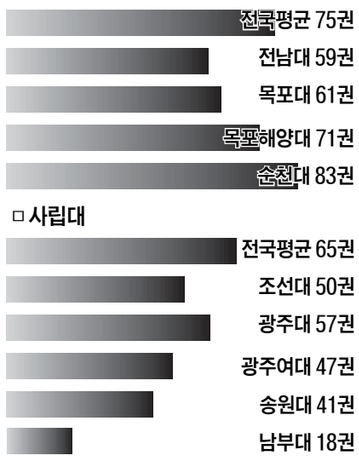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다. 목포대(61권)·목포해양대(71권) 등도 전국 평균에 비해 못 미쳤다. 순천대만 학생 1인당 도서 수가 83권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사립대도 비슷하다. 전국 사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65권)를 충족한 대학은 전무한 실정이다.

남부대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가 18권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와 관심이 열악했다. 송원대(41권), 광주여대(47권), 조선대(50권), 광주대(57권)의 도서관 자료 구입 수준도 초라했다.

열악한 장서 규모 뿐 아니라 학생 1인당 지출하는 자료구입비 수준도 미흡했다.

■ 학생 1인당 도서확보 현황



목포대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전국 국·공립대 평균(12만 원)의 절반 수준인, 6만5000원에 불과했다. 순천대 10만5000원, 목포해양대 10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전남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12만7000원의 자료구입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사립대의 경우 송원대(1만9000원), 호남대(4만3000원), 동신대(4만9000원), 광주대(4만9000원), 남부대(5만1000원), 광주여대(5만4000원), 조선대(7만9000원) 등 대부분 전국 평균(11만1000원)에 못 미쳤다.

대학 전공서적 가격이 3만~5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 대학들은 전공서적 1~2권 구입비용만 자료 구입에 지출하는 형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역 대학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대학 도서관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고속철 안전 지켜라" 까치집과의 전쟁

철도공사, 단전으로 인한 장애·사고 대비 4~5월 산란기 극성…하루 100여개 제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까치집과의 전쟁'이 치열하다. 일반 열차에 비해 고속철 개통으로 일반 열차보다 차량 운행 횟수가 훨씬 많아지면서 단전으로 인한 장애·사고 가능성 등도 더 높아져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하는 까치집 제거에 매달리는데도 역부족으로, 단전으로 인한 열차 운행 정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봄철 까치집 생성이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철로 구간 내 만들어진 까치집 1700여개를 털어내는 등 까치집 제거를 위한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까치는 3~4시간만에 까치집을 짓는데다, 산란기인 4~5월의 경우 철로 구간에서 하루 100여개씩 집중적으로 제거에 나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코레일측 설명이다.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인 전차선에는 2만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이나 폐비닐·연(鳶)·은박지·풍선·낚싯대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년에 한 번 집을 짓는 까치는 주로 봄철에 새 집을 짓고 집도 견고해 허물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까치집에는 철사 등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어 정전사고의 요주의 대상이다.

코레일측은 단전 발생 방지를 위해 '전기철도 위험요인 신고포상제'를 시행,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까치집으로 인한 단전 발생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4일 오후 3시 호남선 익산역과 공주역 사이 5.3㎞ 구간에서 단전 현상이 발생했다. 목포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는 멈춘 뒤 다른 선로로 노선을 바꿔 정상운행했다. 코레일측은 단전이 일어난지 1시간20분 만인 오후 4시27분에야 정상 운행에 나서는 등 까치집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컸다.

코레일은 직원들이 전차선로를 오가며 5~6m 높이까지 올라 막대기로 까치집을 찾아 허물고 있으나 같은 장소나 그 부근에 또다시 집을 짓는 까치의 습성 때문에 까치와 직원간에 '짓고 허무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측은 "5월 말까지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해 주말·휴일을 가리지 않고 열차운행 장애를 예방하고자 전차선 주변 이물질 제거에 전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철도 위험요인 신고 포상제도는 전차선 주변 1m 이내 이물질을 가까운 역이나 전화(080-850-4982)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공사수주 미끼 2억 가로챈 광주시 공무원 조사

광주지방경찰청은 6일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속여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박모(55)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동창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접근,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전주에서 학교 이전 공사를 맡게 됐으니 수십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2011년 광주시 건설 관련 업무를 맡던 당시, 서울에 위치한 철거업체 대표에게 "광주시 보상팀장으로 순천 공동주택현장 철거업체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또 다른 부지에 대한 철거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대상으로 사기 및 뇌물 요구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처벌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군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모(63) 신안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조 의원이 친구의 권유로 돈을 건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호남선 KTX 개통이후 이용객 34% 늘어

광주본부 지난달 말과 비교

호남선 KTX 이용객 수가 개통 이전보다 하루 평균 34%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KTX 개통 이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KTX 이용객 수는 모두 4만6801명으로 전주(지난달 26일~29일) 대비 1만5979명보다 3만822명(293%) 증가했다.

일별로는 ▲개통 첫날인 2일 1만 명(38%) ▲3일 1만3905명(31%) ▲4일 1만5807명(35%) ▲5일 1만5222명(35%) 등이다.

이는 하루 평균 34% 늘어난 수치다.

호남선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에 정차하는 KTX 수는 왕복 44회(평일)·46회(주말)로, 개통 이전 42회보다 2~4편만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객 수가 급증한 것이다.

윤중한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KTX 개통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장애가 발생했다. 고속철도 개통 초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아니지만 철저히 대비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합장 불법선거 후보·당선자 잇따라 검거

지난달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 당선자 등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강진경찰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진산림조합장 후보자 최모(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최씨를 도와 선물을 돌린 윤모(69)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후보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조합장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조합원 김모(58)씨 등 430여명에게 도자기 수저통, 냄비, 주전자 등 400여만원의 물품을 돌리고 이후 전화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 한 혐의다. 최씨는 이번 선거에서 3위로 낙선했으며, 전국동시 조합장 선과와 관련 광주·전남에서 구속된 첫 차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광양경찰은 지난 3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설 선물을 돌린 혐의로 동광양농협 조합장 당선자 이모(53)씨와 농협 직원 서모(34)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조합장 이씨 등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월 광양시의 한 마트에서 수백만원어치의 과일 상자를 사서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이사 가려 내놓은 고가 TV, 옆집 가게 주인이 3만원에 팔아

쌍나팔

○…옆 가게 주인이 이사를 가려고 매장 밖에 내놓은 수백 만 원대의 TV를 중고가전제품 업자에게 현금 3만원에 판 50대 미용실 여주인이 경찰서행.

○…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여·54)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김모(43)씨의 휴대전화 매장 앞에 놓여 있던 김씨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LED TV 한 대를 훔쳤다는 것.

○…이씨는 김씨가 이삿짐을 옮기는 틈을 타 중고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TV를 가져가게 한 뒤 현금 3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경찰에서 "(장씨가) 이사를 가면서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고 진술. /박기웅기자 pboxe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26598	1	동구 소태동 16, 7층 703호 [소태동,엔케이아이리스1차] 59.2752㎡	아파트	148,000,000 148,000,000	
2014타경 26840	1	북구 용봉동 1035 중흥아파트 102동 4층 4호 84.99㎡	아파트	151,000,000 151,000,000	
2014타경 27737	1	남구 주월동 499 에이동 3층 307호 37.8㎡	아파트	46,000,000 46,000,000	
2014타경 28006	1	동구 운림길 29-10, 7층 703호 84.91㎡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2014타경 28648	1	광산구 월곡동 538-1 101동 14층 1403호 84.51㎡	아파트	139,400,000 139,400,000	
2014타경 29474	1	나주시 대호동 1020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111동 15층 1505호 84.97㎡	아파트	163,000,000 163,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24530	1	담양군 수북면 황덕길126-3 61.1㎡ 12.6㎡ [옵션] 부속 화장실 28.12㎡ 축사 10.72㎡ 16.1㎡ 변소 4.93㎡ 제시외창고 등 25.5㎡	단독주택	11,830,640 11,830,640	제시외건물포함
2014타경 27812	1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294-1 364㎡ 담양군 고서면 동운1길49.34 99.54㎡ 부속창고및변소13.37㎡ 제시외창고 등 206.2㎡	대 단독주택	110,249,700 110,249,70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2014타경 28761	1	서구 양동 5-24 180.5㎡ 서구 구성로49번길 10 1층122.58㎡ 2층82.12㎡ 제시외 주택 등 54.5㎡	대 창고,소매점,다가구	328,685,500 328,685,50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26338	1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113-1 1319㎡	답	79,140,000 79,1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26840	2	북구 용봉동 1364-2 228.1㎡	대	155,108,000 155,108,000	
2014타경 27546	1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403-1 7983㎡	전	22,352,400 22,35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산372-1 7638㎡	임야	30,956,970 30,956,970	일괄매각
		동소 산371 37785㎡	임야		
		동소 산369 2083㎡	임야		
	3	동소 423 982㎡	전	15,850,800 15,850,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21 2532㎡	전		
		동소 422 770㎡	답		
2014타경 28327	1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산110-4 12448㎡	임야	18,672,000 18,672,000	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4타경 28884	1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1162 3007.8㎡	답	36,093,600 36,093,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29368	1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476-2 2869㎡	답	22,952,000 22,9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허통장 변경으로 인한 현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4. 22.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4. 29. (수)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가격 상당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에 투입이 완료되면 공탁로 계원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실시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하여야 바람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와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서 등 본인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정지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광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물품 기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하지 말고, 대금납부신청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5. 4.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계수